

## 농촌진흥청, 충남 영농 현장 방문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 지원”

- 이승돈 청장, 낙농·양돈 분야 선도 농업인과 소통
  - 현장 중심 기술 보급·환경 개선 기술 확산 지원
- ※일시: 2026. 5. 7.(목) 14:00~ / 장소 : 충남 보령시·공주시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5월 7일 충청남도 보령시 농업회사법인 보령우유(주)와 공주시 금강축산을 차례로 방문해 낙농·양돈 분야 선도 농업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보령우유(주)는 유기 및 자연 순환 농업을 기반으로 유기농 우유를 생산해 그릭요거트, 치즈 등 다양한 유제품을 만들고, 체험형 복합문화공간 ‘우유창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약 10만 평 초지에서 풀사료를 생산하고 있으며, 분뇨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청장은 “보령우유는 생산·가공·체험을 연계한 목장형 낙농 모형으로, 농가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좋은 사례”라며, “농촌진흥청은 유기축산 현장의 어려움을 수렴해 고품질 유제품 생산 기술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기술 보급을 확대해 지속 가능한 낙농 산업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으로 이동한 이 청장은 양돈 분야 선도 농업인 금강축산 송일환 대표를 만나 지속 가능한 양돈 산업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개선과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송일환 대표는 영농경력 37년의 양돈 전문가로, 농촌진흥청 선정 2025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축산분야)이다. 송 대표는 양돈 자동화 시설을

구축해 고품질 돈육 생산과 출하 성적 최상위, 생산비 절감 등 스마트 축산을 선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양돈 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을 구축하고자 정밀 사양관리, 스마트 축산 기술 보급, 악취 저감 기술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전담팀을 구성해 가축분뇨 액비 활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농작물 재배 수요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 청장은 “금강축산 같은 선도 농가는 높은 생산성과 스마트 축산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양돈 산업의 경쟁력을 이끌고 있다.”라며, “현장 중심 기술 보급과 악취 저감 등 환경 개선 기술을 확산해 지속 가능한 양돈 산업 발전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붙임. 충남 지역 영농 현장 방문 계획

담당 부서	농촌지원국 기술보급과	책임자	과 장	장기창 (063-238-0970)
		담당자	지도관	윤성환 (063-238-0986)
	국립축산과학원 낙농과	책임자	과 장	김상범 (041-580-3380)
		담당자	연구사	임동현 (041-580-3384)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푸드테크과	책임자	과 장	강근호 (063-238-7350)
		담당자	연구사	유자연 (063-238-7366)
				

**붙임****충남 지역 영농현장 방문 계획**

일 시: 2026. 5. 7.(목), 14:00~16:30

장 소: 충남 공주·보령 영농 현장

내 용: 양돈 대한민국농업기술 명인, 보령우유 영농현장 방문

세부 일정

시 간	분	내 용	비 고
5. 7.(목)		이동	
14:00~14:50	50	◦ 보령우유(개화목장) 현장 방문	* 이수호 대표, A2우유 * 낙농과장 * 축산푸드테크과장
14:50~15:40	50	이동(보령 → 공주) * 70km	
15:40~16:30	50	◦ 양돈 명인 현장 방문	* 기술보급과장
16:30~17:30	70	이동(공주 → 전주) * 70km	